



전북대병원, 폐암 환우 위한 공개강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이 폐암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마련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승철)은 15일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폐암 바로알기 공개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와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KBDCA)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강좌는 박성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유진 임상영양사의 '폐암 환자를 위한 영양관리', 원유희 재활의학과 교수의 '폐암 환자를 위한 운동', 김종현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의 '폐암의 수술적 치료', 박승용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의 '폐암의 항암치료'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의료진과 임상영양사가 함께하는 공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오상근 기자



남원 죽방동, 사랑의 복달임 행사 개최

남원시 죽방동 발전협의회(회장 김정임)는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죽방동 발전협의회 회원, 통장협의회 등 관내 유관 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정성을 가득 담아 삼계탕 130마리를 직접 조리했다.

특히 조리된 삼계탕을 정성스럽게 개별 포장하여 봉사자들이 직접 취약계층 130여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며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의 건강부를 살피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경찰서, 여름철 성범죄 예방 총력

진안경찰서(서장 신은영)는 지난 14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청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 공원 및 계곡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과 군청 직원들은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내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범죄 예방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수상한 흔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힘썼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어르신들의 신나는 일터 ‘진안상회’ 오픈

진안시니어클럽, 신규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진안상회' 개소
각종 건어물 · 주전부리 · 영양 간식 등 판매... 21일까지 오픈 이벤트

진안군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터이자 정겨운 먹거리 상점인 '진안상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진안시니어클럽(관장 조수현)은 지난 15일(수) 진안을 진무로 1083-1(구, 고병만사무소)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공동체 사업단인 '진안상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진안상회'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질 좋은 건어물과 주전부리, 온 가족 영양 간식 등을 판매하는 공동체 사업단이다.

이날 오후 매장을 직접 방문한 전춘성 군수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인생 2막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특히 매장에 진열된 건어물과 간식류를 직접 살펴보고 제품을 구입하며,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상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 30여 명이 새로운 일 자리를 얻게 되었으며, 매장운영수익금 전액은 참여 어르신들의 인건비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는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



해 방문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수현 관장은 "진안상회는 단순한 상점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상회에서 활하게 웃으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진안의 건강한 미래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이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 쌍치면 수박공선회, 직접 수확한 수박 60통 기탁

순창군 쌍치면 수박공선회(회장 정덕모)가 직접 짬 흘려 수확한 명품 수박을 지역 사회와 나누며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쌍치면 수박공선회로부터 고품질 수박 60통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순창군과 지역 농가가 협력해 일궈낸 고부가가치 농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그동안 순창군은 불철 저온기 피해를 예방하고 3월 중순 조기 정식(단단하게 자란 모종을 밭에 내어 심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박하우스 내 소형터널 재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농가들은 남들보다 한발 앞서 수박을 심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여름 노지 수박이 대량 출하되기 전인 초여름 '틈새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해 농가 소득을 크게 올렸다.

실제로, 현재 쌍치면에서는 10개 농가(7.8ha)가 수박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된 수박은 정음 단품미인 조



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전량 계통 출하되고 있다.

특히 쌍치면 농가들은 수박 출하가 끝난 7월 이후, 같은 하우스 부지에 후작으로 '애호박'을 연이어 재배하고 있다. 이처럼 수박과 애호박을 연계한 알찬 이모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소득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군장애인주간시설, 장수군산림조합과 숲체험

장수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15일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장수군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록동행,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숲체험 프로그램은 장수군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장수군산림조합이 연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숲 산책, 오감열기, 향기테라피, 음파체험, 자연 관찰, 산림 해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숲의 향기와 소리를 활용한 체험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참여자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 계화면, 36개 마을 경로당 운영 실태 점검

부안군 계화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36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 여름철 극한더위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와 운영 실태 점검, 마을별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햇빛을 차단하고 야외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을 전달하며,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극한더위 대응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수소방서, 폭염 속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14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직사광선으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어컨 장시간 사용에 따른 엔진 과부하, 배선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전기적·기계적 요인의 차량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동규 서장은 "여름철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발 전 엔진룸 점검을 실시하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차량 내부에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